

자동차용 촉매 "공급과잉" 우려

98년 생산능력 950만Piece ... 자동차 신수요 격감추세

국내 자동차용 촉매 시장이 증설에 따른 공급물량 증가로 과잉경쟁이 우려된다.

이는 오텍이 95년 200만Piece를 증설한데 이어 희성엔젤하드도 350만Piece 규모의 공장을 98년 완공 목표로 증설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로써 국내 자동차용 촉매 생산능력은 98년2월을 기해 오텍 350만Piece, 희성엔젤하드 600만Piece 등 950만Piece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자동차용 촉매 수요전망

(단위: 1000EA)

구 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현 대	1 846.5	2 007.8	2 136.3	2 339.2	2 526.2	2 908.0
기 아	755.2	889.6	999.5	1 052.6	1 098.5	1 286.0
대 우	661.8	728.5	932.1	1 026.0	1 126.7	1 307.0
아시아	79.1	76.6	66.6	69.3	72.2	79.0
대우조선	44.8	49.3	54.2	59.6	65.6	75.0
현대정공	1.7	41.7	51.7	61.7	71.7	70.0
쌍 용	1.7	1.8	15.8	41.8	101.8	120.0
합 계	3 390.8	3 795.3	4 256.2	4 650.2	5 062.7	5 845.0

희성엔젤하드가 증설하는 것은 자동차용촉매 시장이 자동차시장 확대에 따라 98년이후에는 현재 생산시설로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희성엔젤하드는 96년 자동차용 촉매 수요를 전년대비 11.9% 이상 증가한 379만5300Coats, 97년에는 12.1% 증가한 425만6200Coats, 98년에는 9.3% 증가한 465만200Coats로 예상하고 있다.

99년에는 8.9% 증가한 506만 2700

Coats, 2000년에는 15.4% 증가한 584만5000 Coats 등 매년 10% 내외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특히, 희성엔젤하드는 95년 시장점유율이 51.8%에 그쳤으나 상대적으로 저렴한 Double Coats의 양산과 함께 97년부터 대우에 신규 납입하고 삼성의 자동차 생산 시작 등 호재가 겹쳐 96년에는 시장의 53.8%인 204만2000Coats(228만Piece) 판매를 기대하고 있다.

또 97년에는 53.6%인 228만Coats(262만9000Piece), 98년 262만Coats(423만2000 Piece), 99년 294만7100Coats (486만Piece), 2000년 339만Coats (559만Piece) 판매를 계획하고 있다.

반면, 국내 자동차 내수 판매대수가 96년4월 10만4335대에서 9월 8만115대로 23.2% 감소하는 등 악화일로를 걷고 있어 자동차용 수요 확대가 이루어질지 의문시되고 있다.

이에 자동차용 촉매 생산기업들은 시장의 사활을 자동차 수출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승용차 수요는 95년 3600만대에서 2000년에는 25.0% 증가한 4500만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수요확대에 비해 가격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보여 수출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자동차용 촉매도 공급과잉을 보이고 있어 수요개척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자동차용 촉매의 국내수요는 339만800Coats로 이중 희성엔젤하드가 177만5000Coats를 공급해 51.8%를 차지했으며, 오텍이 156만9400Coats로 46.3%를 점유했다.

수입품은 6만6400Coats로 수요의 2.0%를 차지하는데 그쳤다.

자동차 생산기업별 수요를 보면, 현대자동차가 184만6500Coats로 시장의 54.5%를 차지했으며 기아자동차 75만5200Coats (22.3%), 대우자동차 66만1800Coats (19.5%), 아시아자동차 7만9100Coats (2.3%), 대우조선 4만4800Coats(1.3%), 현대정공과 쌍용자동차가 1700Coats로 각각 0.05%를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